

SK에너지, 지역아동센터에 책·도서관 기부

SK에너지(대표 박봉균)가 3년 동안 전국 4000여개 지역 아동센터에 55억8000만원 상당의 책과 도서관을 선물한다.

SK에너지는 5월8일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2015년까지 전국 3300개 SK주유소가 해당 기부금을 마련해 전국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랑의 책 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SK주유소는 고객이 주유할 때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고 주유소별로 자율적인 기부금을 더해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 시설이 없는 아동센터에는 <행복한 도서관>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독후감 대회 또는 독서왕 선발대회를 열어 장학금과 난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SK주유소들은 별도로 각 소재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유튜브를 지원하며, SK주유소 고객들도 주유소를 통해 도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SK에너지는 밝혔다.

<화학저널 2013/05/08>